

현장시선



변순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만난 사람들

올해 우리 단체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제주도 후원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시작했다. 도민들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문화확산을 위해 제주도 전역에서 강의와 캠페인, 개인을 만나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다. 6월 1일까지는 선거로 막혀 아무것도 못하다가 6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세대간 의견이 너무 갈려 놀랍고 흥미로웠다.

을 잘 알고 있으며, '해야 한다'라며, '수고한다'라고 격려까지 해줬다. 6070세대들은 성별로 차이를 보았다. 6070세대 중 남성들은 "그런 말은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무슨 시끄럽게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여성들은 "우리 세대 여성은 아무 말 못 하고 그저 순종하며 힘들게 살아왔으니 후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평등한 세상이 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6070세대 여성들은 요즘도 밖에서는 이런 주장을 말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직도 집안일은 당연히 여성만 해야 하고 어디 나다니는 것도 맘대로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지난날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도 못받고 집안일, 발일, 경제 도우미를 모두 짊어져야 했던 아픔이 가슴에 한으로 남았다고 토로했다.

2030세대의 남성들은 집안일, 육아를 당연히 함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퇴근하면 아이 목욕부터 저녁 준비, 그리고 설거지까지 한다. 아들 어머니는 "며느리가 조금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생각을 말할 수는 없었다"며 "집안일 날짜와 시간이 짜여 있고 당번인 아들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조금도 일 안 하던 아들이 장가가서 바뀐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 속상했다"고 얘기했다. 모두 자기 처지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전에는 결혼을 앞두고 여성들은 신부수업을 받았었다. 요즘은 신랑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시대의 변화를 실감한다.

사회에 나와 여성은 승진과 임금 격차로 인해 좌절하는 예도 많다고 한다.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남성들은 자신들의 몫을 빼앗기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분노하고, 여성들은 성별 임금 격차와 승진 불이익 등 여성이 살기에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니터링을 다녀보니 젊은 남성들은 여성 힘이 요즘 더 강하다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교육과 홍보로 유치원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양성평등,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쪽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열린마당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을 위한 백신'



우정훈 서귀포소방서 소방교

비상구는 긴급사상 발생 대비를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 대피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종종 관리상의 편으로 평소 잠금 상태로 이용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며 창고로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를 넘어서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및 폐쇄·훼손,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면에 장애물 설치 및 방화문 폐쇄·훼손,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및 잠금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한 불법행위가 위법사항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1회 5만원(연간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화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기에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 그에 따른 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새 도정 공약 이행, 정부 설득이 과제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할 산이 적잖을 것이다. 무엇보다 임기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새 도정의 7대 목표 가운데 첫번째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정부와 국회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잇그제 발표한 주요 공약 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우선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 다음 중앙정부와 국회 지원 없이는 안된다. 또 제주 신항만 건설과 연계하는 물류단지 조성은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물류센터 조성도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역사관 건립을 비롯 서귀포시 스포츠종합체육관(5000석 이상) 건립, 친환경교통수단(수소트램)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새 도정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가 재정확충 방안으로 국제 이양·제주계정 개선 등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인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지만 경제부시장은 항상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전문가를 기용했던 단재가 있었다. 제주도는 정부부처사가 있지만 이를 참고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오 도정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파격적으로 등용해야 할 것이다.

초유의 고유가 서민 '비명'... 이대론 안된다

기름값 급등세가 장기화로 치달아 서민들 고통은 형언 못할 정도다. 초유의 기름값 공공행진에 생계형 운전자와 농어민, 자영업자 등 서민들 삶이 '절벽'인 상황이다. 제주가 전국 최고 기름값인데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효과도 기대하여서 더 고통인 현실이다. 최근 유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일 오르고,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싼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기름값은 지난달 29일 1당 평균 경유 2276.74원, 휘발유 2216.58원에 달했다. 작년 봄 평균 1400~1600원대에서 계속 급등세라는 얘기가.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싼 가격 역전도 20여일째 보여 서민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지난 4-5월 몇 차례였다가 이달 8일부터 경유값이 계속 비싼 상황이다.

서민들 삶이 치명적 위기다. 대다수 디젤차량을 사용하는 생계형 운전자들, 농어민,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기름값 부담에 아우성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는 진정되지 않고, 유류세 인하도 큰 효과를 못 본 현실 탓이다. 전국 최고 기름값에 타 지역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문제다. 도가 불가대책의 한계만을 말할 게 아니라 동원 가능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전국 최고 기름값이란 '불명예'를 낫출 것인가. 제주가 지역특성상 해상운임비 추가에 정유사 직매입 대신 대리점 공급에 의한 수수료 추가 등으로 빛은 전국 최고 기름값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근 도 고위관계자 예고처럼 판매점을 찾아 유류가격 안정에 힘써달라는 당부로는 어렵지 않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윤형.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1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부고. 안귀환(前 제주경영자총협회장) 어머니 김해김씨 순암(향년 87세)께서 2022년 6월 30일 07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포: 2022년 7월 2일(토요일) ▶발인일시: 2022년 7월 3일(일요일)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지: 양지공원 → 선릉리 선영. 아들 안귀환 며느리 이현미, 경환 최미경, 딸 안세연 사위 강남희, 필숙 이원재, 세나 강성규. ※연락처: 안귀환 010-7222-8411, 안경환 010-5718-252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곡산강공은흥(건축사, 향년 8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 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7월 1일. 부인 권부자, 아들 강희종 며느리 진현희, 민석 백나영, 딸 강지영 사위 이원재, 소영 한경훈

상속의 한정승인 공고. 피상속인: 신장돈(890424-*) 최우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97, 나동 101호 (서홍동, 선진다세대 나동). 2022년 7월 1일. 상속인: 1. 이은숙 2. 신승민 3. 신재민 위 1.2.3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홍중로 27번길 4, 801호(서홍동, 파크하임3차)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리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도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